

19세기 중엽 仁川 永宗島 주민의 通婚 양상*

- “1867년 永宗鎮戶籍” 자료의 분석 사례 -

임학성**

〈차 례〉

1. 머리말
2. 지역과 자료
3. 戶·口 양상 및 姓貫 분포
4. 通婚 양상
5. 맺음말

【국문초록】

17세기 중엽 조선 정부는 江華島를 중심으로 海防 체제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南陽都護府 永宗浦에 있던 永宗鎮을 1653년에 인천 앞바다에 있는 紫燕島(현 永宗島)로 이설하였다. 이후 영종진은 몇 차례의 변천 과정을 거쳐 1758년 獨鎮으로 승격되어 해방 체제의 중심지로 변모하였고, 섬으로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水軍防禦營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獨鎮은 軍政뿐 아니라 戶政 및 田政 등도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그에서 거둬들인 稅收를 수군진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영종진에서는 3년마다 戶口 조사를 실시하여 戶籍을 작성하였을 것인데, 현재 그 소재가 확인된 호적 자료는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된 1867년도 호적대장 한 책만이 유일하다.

이 글은 “1867년 永宗鎮戶籍”을 분석하여 자료에 수록된 營下面(紫燕島와 月尾島)·三木面(三木島와 薪佛島)·龍流面(龍流島와 舞衣島) 거주 주민들의 通婚 양상을 考究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19세기 중엽 영종진 관할 섬들에서 거주한 戶首와 妻의 상위 姓貫 분포는 거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1047).

**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일치하고 있었다.

둘째, 영종진 관할 섬들에서 거주한 거대 성관들은 서로 중첩된 통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셋째, 거대 성관들은 戶首 당대뿐 아니라 累代에 걸쳐 특정 성관들과 집중적으로 통혼 관계를 맺고 있었다.

넷째, 특정 성관과 집중적으로 통혼 관계를 맺은 거대 성관은 대체로 상층 신분의 출신들이었다.

다섯째, 어느 형제의 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주민들의 통혼망은 영종진 관할 영하면·전소면·후소면·삼목면·용유면의 전 지역에 망라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1867년 永宗鎭戶籍” 자료에서 나타난 ‘지역 內婚’과 ‘특정 성관끼리의 중첩된 통혼’ 양상은 육지 사람들과 쉽게 관계를 맺기 어려운 섬 지역의 특성(즉, 고립성? 기피성?)이 반영된 것이며, 이와 아울러 섬 주민들 간의 통혼을 통하여 水軍鎭의 軍役 자원을 원활하게 충당하려는 정책 및 관례가 지속된 결과였다고 해석하였다.

[주제어] 仁川, 紫燕島, 永宗島, 三木島, 龍流島, 水軍鎭, 永宗鎭, 戶籍, 섬(島嶼) 주민, 通婚

1. 머리말

조선시대는 국가를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로 통치하려 하였고, 통치의 안정을 위해 신분질서를 작동시켰다. 비록 신분질서의 최상층인 양반사족을 위한 것이었지만 각종 법규를 통해 상하 신분 간의 위계 및 의례를 엄격하게 구별(즉, 차별)하였다.

조선시대 양반 및 중인의 상층 신분이 신분체제를 공고히 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通婚이었다. 평민이나 노비와 같은 하층 신분층의 경우 ‘상놈’[常漢]으로 통칭되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신분층 간에 통혼(즉, 良賤交婚)은 흔한 일이었지만,¹⁾ 상층 신분층 내에서는 양반 남성이 중인 가문의 여성

1) 한영국, 『조선 중엽의 노비결혼양태: 1609년의 蔚山戶籍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상, 하), 『歷史學報』 75·76합, 77, 역사학회, 1977, 1978; 김동인, 『조선전기 良賤交婚에 나타난 良人分化 양태』, 『崇實史學』 8, 숭실대 사학회, 1994; 임학성, 『조선후기 私奴婢의 신분변동상에 관한 일연구: 17·18세기 丹城戶籍의 사례분석』, 『仁荷史學』 3, 인하역사학회, 1995; 임학성, 『평민가문의 직역 변동상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사회의 身分制動搖: 17·18세기 丹城戶籍의 사례분석』, 『仁荷史學』 4, 1996; 임학성, 『조선후기 公奴婢의 신분변동상에 관한 一研究: 17·18세기 丹城戶籍의 사례분석』, 『國史館論叢』 86, 국사편찬위원회, 1999; 李俊九, 『조선후기 마을을 이루고 산 고리백정의

을 쫓으로 삼는 경우라면 모를까, 양반과 중인 신분이 서로 통혼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즉, 通婚 관계는 상층 신분으로 올라 갈수록 엄격하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한편, 중인 및 평민 신분층에게는 통혼이 자신이나 후손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戶籍 자료(戶籍大帳 및 准戶口)의 분석에서 중인 신분의 배우자가 양반 신분층 부녀자의 공식 호칭인 ‘氏’를 기재하거나, 평민 신분의 배우자가 중인 신분층 부녀자의 공식 호칭인 ‘姓’을 기재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점에서 그러하다.²⁾

지금까지 조선시대를 살았던 인물 및 가문, 집단의 通婚 양상과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³⁾ 이는 전근대사회가 신분질서에 의하여 작동

존재양상: 大丘府 戶口帳籍을 중심으로, 『朝鮮史研究』 10, 조선사연구회, 2001; 임학성, 『조선 후기 경상도 丹城縣 戶籍을 통해 본 巫堂의 존재 양태: 巫夫(花郎) 朴進明 일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4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자료를 통해 본 사노비의 존재양태: 대구 경주쇠짜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1-1, 역사문화학회, 2008; 조병로, 『조선후기 松羅道 驛民의 家族구성과 婚姻에 의한 신분변동 연구: 慶尙道松羅驛乙酉式形止案大帳』, 『역사와 교육』 20, 역사와 교육학회, 2015; 김경란, 『조선후기 奴婢의 父姓찾기: 良賤交婚者 所生 奴婢를 중심으로』, 『史林』 54, 수선사학회, 2015; 김의환, 『진천 평산 신씨 노비 가족의 존재양상: 노비의 결혼과 가계 계승을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52, 한국고문서학회, 2018; 김영나, 『17~18세기 소수서원 노비의 혼인과 가족』, 『嶺南學』 73,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20; 김영나, 『17~19세기 병산서원 노비의 존재양상』, 『大東漢文學』 67, 대동한문화회, 2021.

- 2) 임학성, 『조선후기 평민가문의 准戶口를 통해서 본 신분변동 양태』, 『한국학연구』 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7; 임학성, 『18~19세기 西海 島嶼住民의 거주 양태: 白翎島 거주 金海 金氏 일가의 古文書 자료 분석 사례』, 『한국학연구』 41, 2016; 임학성, 『18~19세기 仁川 德積島 住民들의 거주 양상: 金海 金氏 일가의 古文書 분석 사례』, 『한국학연구』 45, 2017.
- 3) 정승모, 『통혼권과 지역사회체계연구』, 『한국문화인류학』 15, 한국문화인류학회, 1983; 이수건, 『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朝社會史의 일연구: 경북지방 在地士族을 중심으로』, 『韓國史學』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옥한석, 『춘천 부근 주요 氏族에 의한 혼탁 형성과 通婚關係 연구』, 『강원문화연구』 11,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1992; 이정우, 『조선후기 충청도 士族의 婚姻 양상과 추이: 회덕현 鄉村 古文書 入錄者를 중심으로』, 『湖西史學』 25, 호서사학회, 1998; 권기석, 『19세기 勢道政治 세력의 형성 배경(상): 조선후기 집권세력의 通婚關係網 분석을 중심으로』, 『震檀學報』 90, 진단학회, 2000; 김소은, 『16세기 兩班家의 婚姻과 家族關係: 李文健의 『默齋日記』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97, 2001; 조강희, 『영남지방 양반가문의 婚姻關係』, 경인문화사, 2006; 권내현, 『조선후기 동성촌락 구성원의 통혼 양상: 단성현 신등면 안동권씨 사례』, 『韓國史研究』 132, 한국사연구회, 2006; 이성임, 『조선 후기 동성촌락 구성원의 혼인관계: 단성현 범물야면 高山金氏 사례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32, 고려사학회, 2008; 이성임, 『18세기 경상도 단성현 범물야면의 혼인 양상』, 『남도문화연구』 19, 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원 남도문화연구소, 2010; 한상우, 『조선후기 鄉戰을 통해 본 양반층의 親族, 婚姻: 안동의 屏虎是非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81, 2013; 김경란, 『조선후기 新興勢力의 향촌기반 구축과정에 대한 연구: 慶尙道 丹城縣 靑公 沈氏 사례』, 『史叢』 78, 고려대 역사연구소, 2013; 김봉곤, 『智異山園(南原)士族 朔寧崔氏 家系記錄과 通婚圈』,

된 사회였고, 신분질서 체제를 유지하는 결정적 인과 가운데 하나가 통혼 관계였다는 점에서 당연한 관심과 결과라 하겠다. 여하튼 기존의 연구 결과 조선시대에는 신분별로 통혼 양상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신분 內婚’, 또는 ‘通婚圈’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통혼권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양반을 비롯한 상층 신분은 평민·노비의 하층 신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혼의 지역적 범위가 넓었다는 점 등이 밝혀졌다. 또한 양반사족의 경우 家格이 비슷한 가문과의 통혼이 이루어졌으며, 몇 개의 특정가문이 서로 중첩되어 통혼을 하는 이른바 ‘연줄혼’의 사례도 확인되었다.⁴⁾

한편, 양반 신분층에 대한 연구 분량에는 크게 부족하지만 京衙前 書吏와 鄉吏, 譯科·醫科·律科·籌學 입격자 등 중인 신분층의 통혼 양상을 究明하는 연구도 적잖이 이루어져, 이들이 주로 동일 신분(직역)층 간에 혼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전문가 집단(가문)으로서의 공고한 결속력을 지니려 하였다는 사례도 제시되었다.⁵⁾

『古文書研究』 42, 2013; 김정운, 「조선 후기 사족의 혼인과 이주: 예안 광산김씨의 사례」, 『韓國史學報』 60, 2015; 김정운, 「17세기 경상도 사족의 혼인과 가족: 김택룡(金澤龍, 1547~1627) 가족의 이야기」, 『북현사림』 35, 경북사학회, 2017; 김명자, 「안동 권씨의 문경 송죽리(松竹里) 정착과 사회적 기반의 확대」, 『朝鮮史研究』 27, 2018; 김정운, 「18세기 경상도 사족의 거주 방식과 가족 관계: 金純義(1645~1714) 가족을 중심으로」, 『歷史教育論集』 69, 역사교육학회, 2018; 구진성, 「安溪 마을, 晉陽 河氏 婚班 연구: 초기 혼반을 중심으로」, 『南冥學研究』 58,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8; 김경호, 「혼인의 관계망을 통해 본 16세기 호남유학」, 『嶺南學』 64, 2018; 정진영, 「대구지역 한 양반가의 일기자료를 통해본 18세기 혼인풍속: 百弗庵 崔興遠의 『曆中日記』(1735~1786)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54, 2019; 김명자, 「『曆中日記』를 통해 본 18세기 대구 사족 최홍원의 관계망」, 『국학연구』 38, 한국국학진흥원, 2019; 김연수, 「은진송씨 송준길가를 통해 본 기호사대부의 통혼 양상과 혼례문화」, 『韓國系譜研究』 10, 한국계보연구회, 2020; 강경윤, 「공주 진주류씨의 무반가형성과 혼맥관계 연구: 덕수이씨 충무공과와의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이순신연구논총』 32,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2020; 김명자, 「조선후기 전주류씨 함벽당의 관계망과 그 특징」, 『국학연구』 44, 2021.

4) 조강희, 위의 책(2006), 124~134쪽; 이성일, 위의 논문(2010), 293~296쪽; 정진영, 위의 논문(2019), 249~250쪽.

5) 김동진, 「조선후기 濟州 大靜縣 鄉吏層의 신분변동」, 『史學志』 28, 단국대 사학회, 1995; 김동철, 「18~20세기초 東萊府 巨閔里 南原 梁氏 집안과 古文書」, 『港都釜山』 16,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0; 김동철, 「조선후기 동래부 吏族 밀양 박씨 집안과 그 고문서」, 『古文書研究』 22, 2003; 이성일, 「19세기 제주 大靜縣 邑治 거주민의 혼인양상: 『大靜縣衙中日記』와 『東城里戶籍中草』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57, 2007; 권기중, 「조선 후기 향리층의 혼인 네트워크: 『경상도단성원 호적대장』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33, 2008; 김두현, 「조선 후기 京衙前 書吏 가계 연구: 承政院 書吏 馬聖麟(1727~1789) 가계의 사례」, 『향토서울』 7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0; 김두현, 「조선 후기 京衙前 書吏 가계 사례 연구: 申得麟(1734~?) 가계」, 『古文書研究』 42, 2013; 김두

이밖에 조선후기 평민 신분층의 통혼 양상을 고구한 연구 성과도 생산되었다.⁶⁾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평민 신분층의 경우 양반 신분층과 달리 특정 성관과의 중첩된 통혼 양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처지(직역·신분, 경제력, 사회적 인식 등)가 비슷한 상대와 통혼 관계를 이루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혼권의 지역적 범위는 같은 동리나 그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았음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섬 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이 어떠한 통혼 양상을 보였는가를 究明하려는 작업이다. 그동안 조선시대 통혼 연구가 대다수 육지에서 거주한 개인이나 가문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섬 주민에 관한 연구는 독창성을 지니며, 이 연구 결과는 조선시대 통혼 양상에 관한 특징적(섬 지역이라는 점, 수군진 소속 주민들이라는 점 등) 사례 및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

더군다나 이 연구는 조선시대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가장 적합하게 살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료인 戶籍, 특히 섬 지역의 호적(“1867년 永宗鎭戶籍”)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⁷⁾

현, 『조선후기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의 가계와 혼인』, 『동북아역사논총』 41, 동북아역사재단, 2013; 장인진, 『조선후기 譯官族譜의 고찰: 『金山李氏世譜』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94, 2016; 김두현, 『조선후기 통신사행 수행 寫字官의 신분과 가계 및 혼인』, 『港都釜山』 33, 2017; 김두현, 『조선 후기 京衙前 書吏 가계 林夏蕃 가계의 존재 양상: 경어진 서리의 사회 신분상의 위치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96, 서울역사편찬원, 2017; 나영훈, 『조선 후기 의과 입적자의 친족 네트워크와 결속』, 『大東文化研究』 110, 2020; 나영훈, 『조선 후기 律科入格者の 친족 네트워크와 결속』, 『국학연구』 45, 2021; 권기석, 『조선 후기 醫官 가문의 인연 구성과 계보적 연계: 『醫譯籌八世譜』 수록 인연 분석을 중심으로』, 『의사학』 30-2, 대한의사학회, 2021.

- 6) 임학성, 앞의 논문(1997); 임학성, 『조선 후기 牧馬軍 일가의 신분변화: 靈興島 平澤林氏家所傳 准戶口의 분석』, 『한국학연구』 9,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8; 山内民博, 『19세기 경상도 安義縣戶籍大帳에 기재된 柳器匠에 대하여』, 『大東文化研究』 42, 2003; 권오정, 『19세기 濟州島 촌락의 촌락내훈율과 촌락내 혼인관계 연구: 濟州 大靜縣 沙溪里 戶籍中草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23, 제주학회, 2003; 김두현, 『조선 후기 기술직 중인 庶流의 혼인과 과거 합격 및 관직 진출』, 『民俗學研究』 14, 국립민속박물관, 2004; 김경란, 『조선 후기 평민 同姓마을의 형성과 특징: 大丘府 解北村 廣里의 丹陽 禹氏 사례』, 『사학연구』 128, 한국사학회, 2017; 진상원, 『19세기 말 民村 지역 주민들의 혼인 연망과 종족화 양상: 東萊府 『沙上面 戶籍中草』의 사례 분석』, 『古文書研究』 52, 2018.
- 7) 필자는 2007년에 이 호적 자료를 수집하여 처음 학계에 소개하면서 아울러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본적인 주민 구성 형태(호·구와 性比, 동거인, 연령 및 職役, 姓貫 분포 등)를 분석한 바 있다(임학성, 『19세기 후반 仁川 島嶼지역의 주민 구성: 1867년 ‘永宗鎭戶籍大帳’의 사례 분석』, 『한국학연구』 19,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08). 이 논문은 선행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通婚 관계를 究明하려는 후속 작업에 해당한다.

2. 지역과 자료

자죽빛 제비가 많다하여 ‘紫燕’이라 불렀던⁸⁾ 인천의 한 섬이 그 이름을 ‘永宗’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는 조선 1653년(효종 4) 南陽都護府의 永宗浦에 있던 水軍萬戶鎭을 이곳으로 移設함과 아울러 기존의 鎭名을 그대로 사용하면서였다. 이는 효종 대에 적극적으로 추진된 江華島의 방비책과 관련이 있었다. 강화도 남단에 위치한 자연도에 軍鎭을 설치함으로써 강화 북단에 위치한 喬桐島와 함께 강화도를 방어하는 좌우 날개로 삼으려 하였던 것이다.⁹⁾ 이와 아울러 기존의 永宗鎭이 ‘小浦之邊’, 즉 작은 포구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 水軍鎭이 들어설 자리로 적합하지 않았던 점도¹⁰⁾ 이전의 주된 사유로 작용하였다.

조선 정부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주민의 거주 및 入島를 제한하는 이른바 ‘空島’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말과 소 등을 목축하는 국영목장을 설치하였다.¹¹⁾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荒唐船(즉, 海賊船)의 출몰이 잦아지면서 海防체제가 조정의 주요 문제로 거론되면서 섬 지역에 대한 군사적인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 해결책으로 섬 지역에 수군진을 설치·증설하게 되었다.¹²⁾ 조선 후기 해방체제의 운영에서 가장 핵심 지점은 都城의 길목에 위치한 인천·경기 해역에 자리 잡은 섬들이었다. 자연도(현, 영종도)를 비롯하여

-
- 8) 徐兢(1091~1153), 『宣和奉使高麗圖經』 권39 海島 6, 紫燕島. “是日申正 舟次紫燕島 卽廣州也 倚山爲館 榜曰慶源亭 亭之側 爲幕屋數十間 居民草舍亦衆 其山之東一嶼 多飛燕 故以名之”.
- 9) 朴廣成, 『紫燕島攷』, 『畿甸文化研究』 6, 인천교대 기전문화연구소, 1975(朴廣成, 『韓國中世社會와 文化』, 민족문화사, 1991에 재수록).
- 10) 『備邊司謄錄』 16책, 효종 4년 3월 3일조. “啓曰, … 永宗萬戶 僻在於南陽小浦之邊 距海頗遠 最爲不緊 以此移設 勿改前號 仍兼監牧 更爲觀勢 陞其職品”: 『輿地圖書』, 江都府 永宗防營圖誌, 建置沿革條. “永宗古號紫燕島 崇禎癸巳(1653년-인용자 주) 南陽府永宗鎭萬戶 移設於本島 兼監牧官”.
- 11) 김경옥, 『空島政策의 단행과 牧場의 설치』(김경옥, 『朝鮮後期 島嶼研究』, 해안, 2004, 47~84쪽에 수록).
- 12) 배우성, 『조선후기 沿海·島嶼지역에 대한 국가의 인식 변화』, 『島嶼文化』 15,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7; 고석규, 『設郡 논의를 통해 본 조선후기 섬의 변화』, 『島嶼文化』 15; 강석화, 『조선후기의 경기남부 해로와 大阜·靈興島』, 『畿甸文化研究』 28, 2000; 김경옥, 『設鎭論議와 水軍鎭의 증설』(김경옥, 위의 책, 179~206쪽); 임학성, 『조선시기 京畿 島嶼지역의 空間認識 변화: 國營牧場 설치(조선 전기)에서 水軍鎭 설치(조선 후기)로』, 『島嶼文化』 43,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4; 김경옥, 『수군진: 물고기 비늘처럼 설치하다』, 민속원, 2019.

長峯島·注文島·德積島·大阜島·靈興島 등에 수군진을 설치하게 된 것은 바로 조선 후기 해방체제로의 전환 및 강화의 결과였다.¹³⁾

그러면 永宗鎭의 이설과 변천, 그리고 수군진 설치(즉, 해방체제의 운영)로 인한 영종도의 변화상에 대해 살펴보자. 영종진은 자연도의 동쪽 끝에 붙은 작은 섬에 移置되었다([지도] 참조). 이 지역은 인천 月尾島와 미주보며 강화도로 들어가는 동쪽 해로를 방어할 수 있는 요충지였다. 그런데 영종진이 들어선 자리는 본섬인 자연도로 들어가는 데 적잖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1663년(현종 4)에 備邊司의 건의로 경기도 내의 僧軍 2백여 명을 동원하여 석축으로 다리(즉, '萬歲橋')를 건설하는 등,¹⁴⁾ 섬 주민을 통솔하는 수군진으로서의 형세를 완성하여 갔다.¹⁵⁾



[지도] 1917년 지도로 복원해 본 19세기 후반의 영종진 관할 5개面 지역

13) 임학성, 위의 논문(2014).

14) 萬歲橋의 명확한 건립 시기는 알 수 없으나, 『備邊司謄錄』 23책, 현종 4년(1663) 4월 16일조(“啓曰 仁川紫燕島設鎭處 往來船隻 例泊於太平巖 自此下船 由一條細路 入往本島 而其路一日之內 僅得再度相通 人馬不得竝行 蓋潮滿 則不通而然也 此路石築 而稍使高廣然後 可免緩急軍馬阻絕之患 招問本島萬戶南得華 則若得役丁二百餘名 赴役四五日 可以完了云 此時民丁 決不可調用 議旬僧軍 准此數趁五月初旬前 調發赴役 似爲便順 以此意分付道臣 使之及期分定以送”)의 기사 내용으로 볼 때 1663년에 준공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5) 영종진의 편제 및 위상 변화 등에 대한 연구로는 송기중, 『17~18세기 중엽 강화도 방어체제 정비와 영종진의 위상 변화』, 『朝鮮時代史學報』 95, 조선시대사학회, 2020.

한편, 영종진의 이설은 北伐을 기치로 내세웠던 효종과 서인 정권이 유사시 淸軍의 침입을 피하여 保障處 강화도로 향하는 왕실의 피난 해로를 확보하려는 것도 주목적이었다. 이는 경기 지역의 수군부대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왕실의 피난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던 데에 기인한다. 강화도 위에 위치한 喬桐島에 三道(경기·충청·황해)의 水軍을 통합한 統禦營을 설치(1633년)한 것, 그리고 영종진 이설 후 3년이 지난 1656년에 영종진 남쪽의 작은 섬인 月尾島에 行宮을 건설하여 通津에서 강화도로 들어가는 해로가 막혔을 경우를 대비하여 ‘仁川-월미도-행궁-영종진-강화도’의 해로를 마련한 것도 같은 방략이었던 것이다.¹⁶⁾

경기도 서해 섬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처음 이설 시에 ‘水軍萬戶(종4품)’ 鎭에 불과하였던 자연도(영종도)는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1681년(숙종 7) ‘水軍僉節制使(종3품)’ 鎭 → 1690년(숙종 16) ‘水軍防禦使(종2품)’ 鎭 등으로 점차 그 위상이 높아졌다.¹⁷⁾ 또한 1758년(영조 34)에는 喬桐島의 京畿水營 소속으로부터 독립하여 御營廳 관할의 獨鎭이 되어¹⁸⁾ 海防 체제의 중심지로 변모하기도 하였다.

자연도에 수군진이 설치되면서 섬 주민은 증가하게 되었는데, 설진 직후인 1656년(효종 7)에 백성들을 모집하여 들어와서 살게 한 사실,¹⁹⁾ 그리고 1678년(숙종 4)에 자연도에 설치되었던 국영목장을 혁파하면서 사람을 불러 모아 그 땅을 경작시키는 정책을 추진한 사실²⁰⁾ 등을 통해 入島 정책과 주민 증가 양상을 살필 수 있다. 그 결과 예전에는 進上할 만큼 많던 시슴이 지금은 늘어난 주민 때문에 거의 멸종하였다고 보고될 정도였다.²¹⁾

16) 『備邊司謄錄』 49책, 숙종 21년(1695) 3월 4일조. “… 左尹李世選所啓 紫燕島永宗鎭 卽御營廳所營也 脫有緩急 則法駕路由仁川 過草芝堡 始抵島中 而其間有於乙味島(월미도의 이칭-인용자 주) 去丙申年(1656년-인용자 註) 始置麻宇 名以行宮矣 年久傾圮 莫可收拾 …”.

17) 『輿地圖書』, 江都府 永宗防營圖誌, 건치연혁조. “… 康熙辛酉(1681년-인용자 주) 陸僉使屬御營廳 海防緊重位號卑微則有違 朝家設施之意 庚午(1690년-인용자 주) 陸防禦使 …”.

18) 『輿地圖書』, 江都府 永宗防營圖誌, 건치연혁조. “… 乙酉(1705년-인용자 주) 屬之喬桐水營 戊寅(1758년-인용자 주) 復屬御營廳設獨鎭”.

19) 『備邊司謄錄』 18책, 효종 7년 6월 28일조. “啓曰 永宗鎭新設之後 別立事目 使之募民入居矣”.

20) 『肅宗實錄』 권7, 4년 9월 을축(27일)조. “移紫燕牧場牛馬 于龍流無衣兩島 以紫燕設屯故也”.

그러면 설진 이후 주민의 증가 양상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에 앞서 설진 이전의 주민 양상을 보면, 12세기 전반기의 기록인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에 막집[幕屋] 수십 칸과 주민들의 초가집이 많다고 하였다.²²⁾ 즉, 당시 자연도에 宋의 사신과 상인들을 접대하던 客館(‘慶源亭’을 말함)이 있었기에²³⁾ 거주하는 주민 또한 적지 않았음을 엿보게 해준다. 그런데 15세기 전반기의 『世宗實錄地理志』에 따르면, 자연도에 水軍·牧子·鹽夫 등의 家戶가 30여 집에 불과하였다고 한다.²⁴⁾ 공도정책에 따라 국영목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거주 및 입도를 禁制한 결과였다.²⁵⁾

그러나 조선 후기 永宗鎭 지역의 戶·口 규모를 정리한 아래 [표1]을 보게 되면,²⁶⁾ 설진 이후 약 100년이 지난 1759년에는 주민수가 850戶·3,038명에 이르렀으며, 이로부터 30년 후인 1789년에는 주민수가 1,028戶·3,15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같은 시기 인천도호부의 전체 주민수가 4,096戶·14,566명이었으므로, 당시 영종진 관할 섬 지역의 주민수는 인천 전체 주민수의 25%(戶의 경우)·22%(口의 경우)나 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⁷⁾

21) 『肅宗實錄』 권7, 4년 10월 경오(3일)조, “仁川紫燕島 舊有臘鹿進上之規 而卽今人居漸盛 鹿幾絕種”.

22) 앞의 주 8번 참조.

23) 박광성, 앞의 논문(앞의 책, 403~404쪽).

24) 『世宗實錄地理志』 京畿 富平都護府 仁川郡, “紫燕島 … 放國馬三百五十八匹 有水軍牧子鹽夫 共三十餘戶”.

25) 한편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역시 국영목장이 설치된 자연도 인근의 三木島와 龍流島에도 수군·목자·염부 등이 30여 戶와 20여 戶 정도 거주하였다고 한다.

26) 조선 후기 永宗鎭의 호·구수를 기재하고 있는 地誌類 자료는 鎭의 관할 하에 있던 삼목도와 용유도는 물론 경우에 따라 月尾島(영하면 屬)·薪佛島(삼목면 屬)·舞衣島(용유면 屬)의 호·구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주민수의 추이 또한 이들 섬을 총괄하여 살필 수밖에 없다.

27) 이러한 주민수 급증 현상은 1758년 獨鎭으로의 위상 변화가 큰 요인이 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표1] 조선 후기 永宗嶺 지역의 戶·口數 추세

시기 호·구	지역	永宗島(紫燕島)·月尾島				三木面	龍流面	계	
		營下面	前所面	後所面	소계				
1759년 자료(1)	戶數	면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음						850	
	口數							계	3,038
								男	1,591
								女	1,447
1789년 자료(2)	戶數	178	227	350	755	72	254	1,081	
	口數	계	562	679	1,051	2,292	228	812	3,332
		男	308	348	591	1,247	116	437	1,800
		女	254	331	460	1,045	112	375	1,532
1840년 자료(3)	戶數	면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음						869	
	口數							2,769	
1864년 자료(4)	戶數	면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음						882	
	口數							계	2,723
								男	1,530
								女	1,193
1867년 자료(4)	戶數	162	204	283	649	53	206	908	
	口數	계	541	616	814	1,971	170	606	2,747
		男	297	338	451	1,086	89	339	1,514
		女	244	278	363	885	81	267	1,233
1870년 자료(5)	戶數	면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음						878	
1894년 자료(6)	戶數	면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음						918	
	口數							2,438	
1907년 자료(7)	戶數	永宗面으로 통합하여 기재						1,102	
	口數							계	3,731
								男	2,011
								女	1,720
1910년 자료(8)	戶數	永宗面으로 통합하여 기재						1,343	
	口數							계	6,483
								男	3,419
								女	3,064

비고 ① 1789년 자료에는 ‘無儀面’의 호·구수가 별도로 기재되었으나, 龍流面に 포함시킴.

- 龍流面: 201戶·635口(남 350, 여 285)

- 無儀面: 53戶·177口(남 87, 여 90)

② 각 시기별 자료의 典據는 다음과 같음.

- 자료(1): 『輿地圖書』(1760년 경 편찬), 江都府 永宗防營圖誌.
 자료(2): 『戶口總數』(1789년 경 편찬) 2책 京畿道, 仁川.
 자료(3): 『京畿誌』(1842~43년 편찬) 3책, 『永宗鎮圖誌』.
 자료(4): 『同治六年正月 日永宗防營今丁卯式帳籍冊』(1867년 편찬), ‘都已上’條.
 자료(5): 『京畿邑誌』(1871년 편찬) 1책, 『同治十年十月 日京畿永宗防營邑誌及事例』.
 자료(6): 『畿甸邑誌』(1894~95년 편찬) 1책, 『開國五百四年正月 日永宗鎮事例』.
 자료(7): 『韓國戶口表』(1907년 편찬), 京畿道 仁川郡.
 자료(8): 『民籍統計表』(1910년 편찬), 京畿道 仁川郡.

이처럼 18세기 말엽까지 급증 추세를 보이던 영종진의 주민수는 19세기에 이르러 그 증가 추세가 다소 주춤하다가(1840년 869호·2,769명 → 1867년 908호·2,747명 → 1870년 878호 → 1894년 918호·2,438명), 20세기 초에 들어서면 다시 증가한 것(1907년 1,102호·3,731명 → 1910년 1,343호·6,483명)으로 나타난다.²⁸⁾ 특히, 1910년도의 영종진 인구는 급증하였음을 본다. 물론 1910년도에 영종진 주민수가 급증한 현상은 실제의 양상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때에 이르러 그 이전 시기와 달리 비교적 철저하게 호구를 조사한 결과이기도 하다.²⁹⁾

이제, 19세기 후반 영종진 지역(이하, ‘永宗’³⁰⁾)에서 거주한 주민들의 通婚 양상을 살피기에 앞서 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이 자료는 일본 東京 國立博物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서지 사항을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제명: ‘同治六年正月 日永宗防營今丁卯式帳籍冊’
- ② 크기: 세로 57.0cm × 가로 40.1cm
- ③ 분량: 1책 93면
- ④ 소장번호: TB-1116

28) 각 시기마다 어떤 자료에는 무의도(무의면)의 호·구수가 집계되었고, 어떤 자료에는 집계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사정이 그렇더라도 무의도의 주민수가 많지 않았기에 그 경향을 살피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29) 이현창, 『『民籍統計表』의 검토』, 『古文書研究』 9·10합, 1996.

30) 본 글에서 ‘永宗’으로 표기할 때는 조선 후기 永宗鎮 관할 하에 있던 자연도와 삼목도, 용유도는 물론 月尾島·薪佛島·舞衣島 등이 포함된 범주임을 밝혀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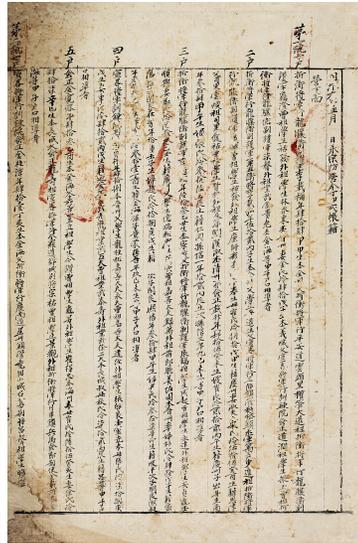
⑤ MF번호: M3340

題名에서 알 수 있듯이([사진1] 참조),³¹⁾ 이 자료는 ‘同治六年’ 즉 1867년(고종 4·丁卯) 永宗防禦營에서 호구조사를 시행한 후 成冊한 戶口帳籍(戶籍大帳)이다. 자료에는 당시 영종방어영의 관할인 營下面·前所面·後所面(이상, 영종도·월미도)과 三木面(삼목도·신불도), 龍流面(용유도·무의도) 등 5개 지역에서 거주한 주민들의 인적 사항이 등재되어 있으며, 주민수는 총 908戶에 2,747명(남성 1,514명·여성 1,233명)로 집계되었다.

앞뒤 표지를 제외한 본문은 총 91면으로 되어 있는데, 각 면마다 세로로 20行의 線이 그어져 있어 여기에다가 각 호별 인적 사항을 기재하였다([사진2] 참조).



[사진1] “1867년 永宗鎮戶籍” 표지



[사진2] “1867년 永宗鎮戶籍” 본문 첫면

본문의 주민 구성은 營下面이 제1통 1호~제32통 2호, 前所面이 제1통 1

31) “1867년 永宗鎮戶籍” 자료의 사진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제공한 것임을 밝힌다.

호~제41동 4호, 後所面이 제1동 1호~제57동 2호, 三木面이 제1동 1호~제11동 3호, 그리고 龍流面이 제1동 1호~제42동 2호 등으로 編制되어 있다. 따라서 洞里的 구분 없이 面別로만 일관되게 五家作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8세기 말엽(1789년경)에 작성된 『戶口總數』를 보면,³²⁾ 永宗營下面에는 鎭下里·越村里의 2개리와 月尾島, 前所面에는 松山里·中村里·小橋里·五加洞里·加羅洞里의 5개리, 後所面에는 大村里·廣洞里·堂下里·於義洞里·白石里·北浦里·浦村里的의 7개리, 龍流面에는 官廳里·筵目里·王山里·馬沙安里의 4개리 등, 총 18개의 동리가 확인된다. 그리고 三木面과 無儀面에 洞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가 적어 별도의 行政 동리를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獨鎭이 설치된 섬 지역에서는 軍政을 책임진 水軍僉節制使(‘僉使’)가 주민들에 대한 호구조사를 실시하여 戶政까지 담당하였다.³³⁾ 따라서 수군진이 설치된 섬 지역의 호적 자료에는 그 작성 및 발급의 최고 책임자인 僉使의 手決이 기재되었는데, 인천 지역의 경우 獨鎭이었던 德積島와 白翎島에서 해당 첨사가 발급한 18~19세기 准戶口 자료들이 발견되었다.³⁴⁾ 그렇다면 영종도 지역에서도 독진으로 기능한 18세기 중엽 이후부터 水軍防禦使가 작성하고 발급한 戶籍大帳과 准戶口 자료들이 적잖았을 것이다. 그런데 호적대장은 본 “1867년 永宗鎭戶籍”이 유일하며, 준호구 자료는 1870년과 1876년에 영종진 방어사가 발급한 後所面 거주 金東圭의 2점만이 발견되었다.³⁵⁾ 덕적도·백령도와 달리 호적대장 자료가 현존하고 있는 점에서는 영종도의 연구 조건이 양호하지만, 준호구 자료가 극히 소량만 발견된 점은 아쉬운 지점이라 하겠다.

32) 『戶口總數』(서울대학교 규장각, 1996년 영인본) 2책, 京畿道, 仁川.

33) 임학성, 「19세기 西海 設鎭島嶼지역의 戶籍자료를 통해서 본 戶政 및 住民의 특성: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德積島 安東金氏家の 준호구를 중심으로」, 『仁荷史學』 10, 인하역사학회, 2003, 768~770쪽.

34) 독진이 설치된 덕적도와 백령도의 18~19세기 준호구 자료에 대한 소개 및 연구는 임학성의 위의 논문(2003)과 앞의 논문(2016, 2017) 참조.

35) 이 준호구 자료 2점은 필자가 2000년 현지조사를 통해 발견한 것으로 『영종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인하대학교 박물관·인천광역시 중구청, 2000, 138쪽과 150쪽(사진)에 소개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소개·분석하는 “1867년 永宗鎭戶籍”은 조선시대의 인천 지역, 특히 인천 앞 섬 지역에서 거주하였던 주민들의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특히 수군진의 이설 이후 수많은 주민들이 入島함에 따라 영종도 지역(영종도·삼목도·용유도 등)은 軍職 및 軍役に 종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다양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변모하였던 것이다.

3. 戶·口 양상 및 姓貫 분포

19세기 중엽 ‘永宗’ 섬 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의 通婚 양상을 살피기에 앞서 “1867년 永宗鎭戶籍” 자료에 등재된 戶·口 양상 및 姓貫 분포를 살펴보겠다.

1) 戶·口 양상과 性比

1867년 永宗防禦營이 관할하고 있었던 5개面에서 거주하고 있던 주민은 908戶에 2,780명이다([표2] 참조).³⁶⁾ 남녀별로는 1,552명(남)과 1,228명(여)으로 남성이 324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면별로는 영종도(옛 자연도)의 후소면이 282호·8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용유면(용유도와 무의도)이 207호·637명, 영종도 전소면이 204호·629명, 영종도 영하면(월미도 포함)이 162호·546명, 그리고 삼목면(삼목도와 신불도)이 가장 적은 53

36) “1867년 永宗鎭戶籍”의 본문 분석 결과로 확인된 호·구수는 호적 말미에 호·구수를 집계한 ‘都巳上’條의 수치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우선 戶數에서 後所面이 283호(도이상)와 282호(본문), 龍流面이 206호(도이상)와 207호(본문)로 각 1호씩 차이를 보였으며, 口數에서는 營下面이 541명(도이상)와 546명(본문), 前所面이 616명(도이상)와 629명(본문), 후소면이 814명(도이상)와 800명(본문), 三木面이 170명(도이상)와 168명(본문), 용유면이 606명(도이상)와 637명(본문) 등과 같이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전체 구수가 ‘도이상’조에서는 2,747명으로 기재된 반면, 본문 분석 결과에서는 이 보다 33명이 더 많은 2,78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하, ‘永宗’ 섬 주민들의 생활 양태를 살피는 데에는 호적 본문 분석 결과로 나타난 수치를 따르기로 한다.

호·168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표2] 1867년 '永宗' 섬 주민의 戶·口 양상

호·구	지역	영종도(자연도)·월미도				삼목면	용유면	계
		영하면	전소면	후소면	소계			
戶數		162	204	282	648	53	207	908戶
口數	계	546	629	800	1,975	168	637	2,780명
	男	296	353	444	1,093	93	366	1,552명
	女	250	276	356	882	75	271	1,228명
戶當口數	계	3.37	3.08	2.84	3.05	3.17	3.08	3.06명
	男	1.83	1.73	1.57	1.69	1.75	1.77	1.71명
	女	1.54	1.35	1.26	1.36	1.42	1.31	1.35명

다음, 5개面 전체의 1호당 평균인구수는 한 家戶/家族 당 4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3.06명(남성 1.71명, 여성 1.35명)으로 나타났다. 면별로는 영하면이 가장 많은 3.37명(남성 1.83명, 여성 1.54명)을 보였고, 후소면이 2.84명(남성 1.57명, 여성 1.26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永宗水軍防禦營이 있는 '治所' 지역의 주민들이 家戶 당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호적 작성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양상인 嬰·幼兒 인구, 특히 女兒의 호적 미등록 현상을 참작하면 1호당 평균인구수는 호적 그대로의 분석 수치보다 적어도 1~3명 정도는 더 늘려 잡아야 이해하는 것이 실제와 가깝다 하겠다.³⁷⁾ 그렇다면 1867년 '永宗' 섬에 거주한 주민들은 1호당 평균 5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호적 등재 시 男兒에 女兒의 미등록 현상이 심하였음은 性比 분석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1867년 당시 '永宗' 섬 지역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324명이나 더 많았음은 앞에서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수치 결과에 따라 性比가

37) 입학성, 『戶籍관련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 후기의 가족구성 양상: 한국가족사의 실체를 究明하기 위한 하나의 試圖』, 『민족문화연구』 4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6.

126.4%로 나타났다([표3] 참조). 여성 1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26명 정도 더 많았던 셈이다. 면별로는 용유면이 135.1%로 가장 높았고, 영하면이 118.4%로 가장 낮았다. 다른 지역(전소면·후소면·삼목면)은 전체 성비(126.4%)와 대체로 유사한 수치(124%~128%)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수치를 있는 그대로만 해석하면 영하면은 남녀의 비율이 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반면, 용유면은 그 비율이 ‘남성 多’로 크게 벗어나는 셈이 된다.

[표3] 1867년 ‘永宗’ 섬 주민의 性比

지역 성비	영종도(자연도)·월미도				삼목면	용유면	계
	영하면	전소면	후소면	소계			
남성	296	353	444	1,093	93	366	1,552
여성	250	276	356	882	75	271	1,228
性比	118.4	127.9	124.7	123.9	124.0	135.1	126.4

비고) 性比는 여성을 100%로 했을 때의 남성 비율을 말함.

일반적으로 전통시대의 실제 성비는 100% 이하 즉, ‘여성 多’로 보는 게 통설이다. 그렇다면 “1867년 永宗鎭戶籍” 자료에서 나타난 126%라는 성비는 마치 현재의 세태를 보는 듯하다. 이러한 양상을 보인 원인은 軍鎭이 설치된 특수지역이었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조선시대 호적 작성 시 女兒(딸과 손녀 등) 인구의 미등재 관습에 기인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실제 본 호적 자료에서 戶首와 동거하는 것으로 등재된 여식은 15명(女 14명, 曾孫女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599명(子 542명, 孫子 57명)이 등재된 자·손자의 현상과 크게 차이를 보였다.³⁸⁾

38) 임학성, 앞의 논문(2008), 171~172쪽.

2) 姓貫 분포

1867년 ‘永宗’ 섬 지역에서 거주한 908명의 戶首 姓貫([표4] 참조)은 金海 金氏가 134명(전체의 14.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全州 李氏가 72명(7.9%), 慶州 金氏가 70명(7.7%), 慶州 鄭氏가 46명(5.1%), 仁同 張氏가 44명(4.8%), 靈光 張氏가 41명(4.5%)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밖에 10명 이상의 戶首가 있었던 성관으로는 慶州 崔氏(30명)·晉州 姜氏(26명)·文化 柳氏·密陽 朴氏·坡平 尹氏(이상 각 19명)·驪州 秋氏(14명)·南平 文氏(13명)·慶州 李氏(12명)·濟州 高氏·海州 吳氏(이상 각 11명)·順興 安氏(10명) 등이었다.

면별 분포를 살펴보면, 영하면은 김해 김씨가 절대다수(약 27%)인 가운데 경주 김씨(13%)와 전주 이씨(10%)가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소면은 김해 김씨(19%)와 경주김씨(16%) 두 성관이 다수를, 후소면은 김해 김씨(11%)와 전주 이씨(8%), 경주 정씨(6%), 인동 장씨(6%)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밖에 삼목면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가운데 전주 이씨(13%)와 김해 김씨(11%), 경주 김씨(9%), 밀양 박씨(8%) 등이 다수 성관이었으며, 용유면은 경주 정씨(11%)와 김해 김씨(8%), 전주 이씨(8%)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永宗’ 전체에서 김해 김씨 戶首가 절대다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영종도에 속한 3개면(영하·전소·후소)에서 압도적인 분포를 보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표4] 1867년 ‘永宗’ 거주 戶首의 姓貫 분포 (단위: 명)

지역 성관	영종도(자연도)·월미도				삼목면	용유면	계
	영하면	전소면	후소면	소계			
金海 金	43(26.5)	38(18.6)	31(11.0)	112(17.3)	6(11.3)	16(7.7)	134(14.8)
全州 李	16(9.9)	11(5.4)	22(7.8)	49(7.6)	7(13.2)	16(7.7)	72(7.9)
慶州 金	21(13.0)	33(16.2)	5	59(9.1)	5(9.4)	6(2.9)	70(7.7)
慶州 鄭	1	5	18(6.4)	24(3.7)	-	22(10.6)	46(5.1)

仁同 張	5	14(6.9)	19(6.7)	38(5.9)	-	7(3.4)	45(5.0)
靈光 張	-	17(8.3)	13(4.6)	30(4.6)	2	9(4.3)	41(4.5)
慶州 崔	8(4.9)	5	9(3.2)	22(3.4)	2	6(2.9)	30(3.3)
晉州 姜	6(3.7)	5	6	17(2.6)	2	7(3.4)	26(2.9)
文化 柳	1	13(6.4)	3	17(2.6)	1	1	19(2.1)
坡平 尹	3	2	6	11(1.7)	-	8(3.9)	19(2.1)
密陽 朴	4	1	9(3.2)	14(2.2)	4(7.5)	1	19(2.1)
驪州 秋	1	-	11(3.9)	12(1.9)	1	1	14(1.5)
南平 文	-	-	6	6(0.9)	-	7(3.4)	13(1.4)
慶州 李	1	-	5	6(0.9)	-	6(2.9)	12(1.3)
濟州 高	2	1	6	9(1.4)	1	1	11(1.2)
海州 吳	1	1	5	7(1.1)	2	2	11(1.2)
順興 安	2	2	2	6(0.9)	3(5.7)	1	10(1.1)
기타 面別 다수 姓貫	隋城 崔 3 坡州 廉 2	安東 金 4 陽川 金 3 忠州 池 3 定山 千 3	德水 張 7 平壤 趙 6 瑞山 宋 5 咸陽 朴 4 陽川 許 4	-	密陽 崔 5 江陵 劉 4	杞溪 俞 9 光山 金 6 漢陽 趙 6 安東 金 4 礪山 宋 4 水原 車 4	-
戶首 전체	162 (100)	204 (100)	282 (100)	648 (100)	53 (100)	207 (100)	908 (100)

비고 ① () 안의 수치는 %임.
 ② 여성 戶首(寡婦)도 포함함.

그런데, ‘永宗’ 전체적으로는 10호 미만에 불과하나 각 면별로는 비교적 다수에 속하는 성관이 있었다. 영하면에서는 隋城 崔氏와 坡州 廉氏, 전소면에서는 安東 金氏와 陽川 金氏·忠州 池氏·定山 千氏, 후소면에서는 德水 張氏와 平壤 趙氏·瑞山 宋氏·咸陽 朴氏·陽川 許氏, 삼목면에서는 密陽 崔氏와 江陵 劉氏, 그리고 용유면에서는 杞溪 俞氏를 비롯하여 光山 金氏·漢陽 趙氏·安東 金氏·礪山 宋氏·水原 車氏 등이 그러하였다.

한편, “1867년 永宗鎭戶籍”에서 나타난 양상을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輿地圖書』 『永宗防營圖誌』의 ‘姓氏’조와 비교해 보면, 호적에서 10호 이상을

보인 다수 성관 중 김해 김씨·전주 이씨·경주 정씨·인동 장씨·문화 류씨·파평 윤씨·밀양 박씨·순흥 안씨 등이 일치하고 있다. 이들 8개 성관은 ‘永宗’에서의 거주가 적어도 100여 년 이상은 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다수 성관 중 경주 김씨·영광 장씨·경주 최씨·진주 강씨·여주 추씨·남평 문씨·경주 이씨·제주 고씨·해주 오씨 등은 『永宗防營圖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즉, 이들 9개 성관은 18세기 중엽 이후에 ‘永宗’ 섬 지역으로 入居하였다고 여겨진다.

이상, 1867년 ‘永宗’ 섬 지역에서는 면별로 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특정 성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1867년 永宗鎭戶籍” 자료가 면별로만 등재되어 있어 각 마을별 양상까지는 분석할 수 없었으나, 각 면에 위치한 일부 마을의 경우 ‘同姓마을’[集姓村]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었다. 비록 호적 자료의 작성 시점으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1930년에 조사된 양상이지만 ‘永宗’ 지역에 다음과 같은 ‘동족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³⁹⁾

永宗面 中山里: 慶州 金(55世帶), 金海 金(53世帶), 仁同 張(25世帶),

全州 李(21世帶), 慶州 崔(15世帶)

永宗面 雲西里: 金海 金(51世帶), 慶州 崔(26世帶), 仁同 張(21世帶),

全州 李(16世帶)

永宗面 雲南里: 金海 金(25世帶), 全州 李(19世帶)

永宗面 雲北里: 金海 金(40世帶), 全州 李(18世帶)

龍游面 乙旺里: 全州 李(22世帶)

龍游面 南北里: 金海 金(25世帶)

이 6개의 동성마을 성관별로 정리하면 김해 김씨는 5개 마을(영종면의 중산리·운서리·운남리·운북리, 용유면의 남북리), 전주 이씨는 5개 마을(영

39) 善生永助, 『朝鮮의 姓』, 朝鮮總督府, 1934. 『同族集團狀況』의 京畿道 富川郡.

중면의 중산리·운서리·운남리·운북리, 용유면의 을왕리), 인동 장씨와 경주 최씨는 2개 마을(영종면의 중산리·운서리), 그리고 경주 최씨는 영종면 중산리 1개 마을에서 동족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명시된 마을들을 “1867년 永宗鎭戶籍”과 대조하면 대체로 영종면의 중산리는 영하면과 전소면 일부, 운남리는 전소면과 후소면 일부, 운서리는 후소면 일부와 삼목면(삼목도), 운북리는 후소면, 그리고 용유면은 용유면(용유도) 지역에 해당한다.⁴⁰⁾ 그렇다면 “1867년 永宗鎭戶籍” 자료에서 각 면별로 다수를 보인(앞의 [표4] 참조) 성관들은 대부분 ‘永宗’ 지역 내에서 집중 世居하면서 1930년대에 이르러서도 해당 마을에서 동족집단(집성촌)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면 戶首 妻의 성관 분포는 어떠하였을까? 아래 [표5]은 “1867년 永宗鎭戶籍”에서 호수의 처로 등재된 759명과 호수로 등재된 부녀자(寡婦) 21명 등, 총 780명의 성관을 분석한 결과이다. ‘永宗’ 전체로는 김해 김씨가 103명(13.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주 이씨가 63명(8.1%), 경주 김씨가 61명(7.8%), 영광 장씨가 39명(5.0%), 진주 강씨가 34명(4.4%), 경주 정씨가 33명(4.2%), 밀양 박씨가 30명(3.9%), 인동 장씨가 29명(3.7%)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밖에 경주 최씨(22명: 2.8%)·문화 류씨·달성 서씨(이상 각 14명: 1.8%)·과평 윤씨(12명: 1.5%)·남평 문씨(11명: 1.4%) 등도 10명 이상의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妻의 성관 분포는 앞에서 살핀 戶首의 성관 분포와 거의 일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위에 분포한 김해 김씨·전주 이씨·경주 김씨 3개 성관은 그 점유율에서도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40) 마을 비정은 『戶口總數』경기도 인천(1789년 경); 『畿甸邑誌』, 『開國五百四年正月 日永宗鎭事例』(1894년); 越智唯七 編,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년) 등의 자료를 대조한 결과이다.

[표5] 1867년 '永宗' 거주 戶首 妻의 姓貫 분포 (단위: 명)

지역 성관	영종도(자연도) · 월미도				삼목면	용유면	계
	영하면	전소면	후소면	소계			
金海 金	18(12.8)	24(14.4)	37(15.2)	79(14.3)	4(8.5)	20(11.0)	103(13.2)
全州 李	14(9.9)	13(7.8)	18(7.4)	45(8.2)	2	16(8.8)	63(8.1)
慶州 金	13(9.2)	12(7.2)	27(11.1)	52(9.4)	-	9(4.9)	61(7.8)
靈光 張	5(3.5)	14(8.4)	11(4.5)	30(5.4)	4(8.5)	5	39(5.0)
晉州 姜	6(4.3)	4	16(6.6)	26(4.7)	1	7(3.8)	34(4.4)
慶州 鄭	7(5.0)	3	10(4.1)	20(3.6)	5(10.6)	8(4.4)	33(4.2)
密陽 朴	3	3	11(4.5)	17(3.1)	5(10.6)	8(4.4)	30(3.9)
仁同 張	2	11(6.6)	8(3.3)	21(3.8)	2	6	29(3.7)
慶州 崔	7(5.0)	6	6	19(3.4)	-	3	22(2.8)
文化 柳	1	4	7	12(2.4)	-	2	14(1.8)
達城 徐	1	3	2	6(1.1)	-	8(4.4)	14(1.8)
坡平 尹	2	2	5	9(1.6)	-	3	12(1.5)
南平 文	2	3	2	7(1.3)	-	4	11(1.4)
기타 面別 다수 姓貫	陽川 許 3	陽川 金 5 咸陽 朴 3 江陵 李 3 昌寧 曹 3	驪州 秋 4 濟州 高 3 安東 金 3 淸州 韓 3 陽川 許 3	-	水原 白 2 驪州 秋 2 昌原 黃 2	杞溪 俞 8 漢陽 趙 6 南陽 洪 4 南原 梁 3	-
妻 전체	141 (100)	167 (100)	243 (100)	551 (100)	47 (100)	182 (100)	780 (100)

비고 ① () 안의 수치는 %임.

② 여성 戶首(寡婦)도 포함함.

다음으로 면별 분포를 보면, 영하면은 김해 김씨(13%)와 전주 이씨(10%), 경주 김씨(9%)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소면은 김해 김씨가 절대 다수(14%)를 보인 가운데 전주 이씨와 영광 장씨(이상, 약 8%씩), 경주 김씨(7%)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후소면 또한 김해 김씨가 절대다수(15%)를 차지하면서 경주 김씨(10%)와 전주 이씨(8%)가 다수를, 그리고 삼목면은 경주 정씨와 밀양 박씨(이상, 11%), 김해 김씨와 영광 장씨(이상,

9%) 등이 다수를, 용유면은 김해 김씨(11%)와 전주 이씨(9%)가 절대다수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을 戶首의 성관 분포와 비교해 보면 영하면에서는 김해 김·전주 이·경주 김씨, 전소면과 후소면에서는 김해 김씨, 용유면에서는 김해 김·전주 이씨 등이 다수 성관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단 戶首와 처의 성관 분포 양상만을 놓고 보면, ‘永宗’에서는 지역 내(영종도·삼목도·용유도 등)의 주민들끼리 通婚을 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었다.

4. 通婚 양상

1) ‘永宗’ 3대 姓貫 남성의 통혼 양상

1867년 ‘永宗’ 섬에 거주한 戶首와 妻 중 다수를 보인 성관의 통혼 관계를 살펴보았다([표6] 참조). 분석 결과 우선 김해 김씨 戶首는 전주 이씨(9.8%)와 경주 김씨(8.3%), 이밖에 영광 장씨(6.1%)와 밀양 박씨(5.3%) 등과 통혼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6] 1867년 ‘永宗’ 거주 주요 姓貫의 通婚 분포 (단위: 명)

妻 戶首	金海 金	全州 李	慶州 金	靈光 張	晉州 姜	慶州 鄭	密陽 朴	仁同 張	기타	戶首 전체
金海 金	3 (2.3)	13 (9.8)	11 (8.3)	8 (6.1)	2 (1.5)	4 (3.0)	7 (5.3)	5 (3.8)	文化 柳 4 坡平 尹 4	132 (100)
全州 李	12 (16.7)	-	4 (5.6)	8 (11.1)	2	1	2	-	水原 白 3 平山 申 2 淸州 韓 2	72 (100)
慶州 金	9 (13.2)	6 (8.8)	1	3	1	3	-	4	南平 文 3 邵城 貢 2 光山 金 2 陽川 金 2 咸陽 朴 2 慶州 崔 2	68 (100)

慶州 鄭	5 (11.1)	2	4 (8.9)	2	5 (11.1)	-	3	-	達城 徐 2	45 (100)
仁同 張	5 (11.4)	1	2	1	6 (13.6)	2	-	-	光山 金 2 驪州 秋 2	44 (100)
靈光 張	5 (12.5)	1	3	-	3	1	-	2	文化 柳 3 南平 文 2 驪州 秋 2	40 (100)
慶州 崔	5 (17.9)	4 (14.3)	2	1	-	1	2	-	-	28 (100)
晉州 姜	3 (11.5)	3 (11.5)	3 (11.5)	-	-	3 (11.5)	1	1	漢陽 趙 2	26 (100)

비고 ① () 안의 수치는 %임.

② 분석에서 寡婦 戶首는 제외함.

그리고 전주 이씨 戶首는 김해 김씨(16.7%)·영광 장씨(11.1%)·경주 김씨(5.6%), 경주 김씨 戶首는 김해 김씨(13.2%)·전주 이씨(8.8%), 경주 정씨 戶首는 김해 김씨·진주 강씨(이상, 각 11.1%)·경주 김씨(8.9%), 인동 장씨 戶首는 진주 강씨(13.6%)·김해 김씨(11.4%), 영광 장씨 戶首는 김해 김씨(12.5%), 경주 최씨 戶首는 김해 김씨(17.9%)·전주 이씨(14.3%) 등과 통혼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진주 강씨 戶首는 김해 김씨·전주 이씨·경주 김씨·경주 정씨(이상, 각 11.5%) 등과 고르게 통혼이 집중되고 있었다.

이상, “1867년 永宗鎭戶籍” 자료에서 다수를 보인 김해 김씨·전주 이씨·경주 김씨·경주 정씨·인동 장씨·영광 장씨·경주 최씨·진주 강씨·밀양 박씨 등의 성관은 서로 중첩된 통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戶首의 처뿐만 아니라 母와 子婦, 祖母, 嫂, 孫婦 등 모든 부녀자들의 성관을 분석하여 19세기 중엽에 ‘永宗’ 섬에서 거주한 3대 성관(김해 김씨, 전주 이씨, 경주 김씨)의 남성들이 어떠한 성관의 여성과 통혼을 하였는지 그 양상을 좀 더 확장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김해 김씨: 成婚 남성 288명의 배우자 성관을 살펴본 결과([표7] 참

조), 경주 김씨를 배우자로 취한 경우가 가장 많은 약 12%를 보였는데, 戶首 10%, 父 14%, 子 8.5%, 이밖에 弟와 孫子 각 1명씩이었다. 따라서 김해 김씨의 경우 3대(부·자·손자)에 걸쳐 경주 김씨와 집중적으로 통혼(즉, ‘연줄혼’)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두 번 째 빈도를 보인 배우자 성관은 전체의 약 10%를 보인 전주 이씨였다. 戶首가 12%, 父가 9%, 子が 10.6%, 이밖에 祖父 1명이 전주 이씨와 통혼을 하였던 것이다. 김해 김씨 역시 3대에 걸쳐 전주 이씨와 연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진주 강씨를 배우자로 취한 경우는 전체의 약 6%였는데, 戶首가 2%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父는 11.5%의 높은 수치를 보여 세대 간 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7] 19세기 중엽 ‘永宗’ 거주 金海 金氏 남성의 通婚 양상 (단위: 명)

성관	관계	戶首의 妻	戶首의 母	戶首의 子婦	기타	계
慶州 金		11(10.1)	17(13.9)	4(8.5)	弟嫂 1, 孫婦 1	34(11.8)
全州 李		13(11.9)	11(9.0)	5(10.6)	祖母 1	30(10.4)
晉州 姜		2(1.8)	14(11.5)	-	祖母 1	17(5.9)
靈光 張		8(7.3)	4(3.3)	4(8.5)	-	16(5.6)
密陽 朴		7(6.4)	5(4.1)	2(4.3)	-	14(4.9)
仁同 張		5(4.6)	3(2.5)	2(4.3)	育(妾) 1	11(3.8)
慶州 鄭		4(3.7)	5(4.1)	-	孫婦 1	10(3.5)
慶州 崔		3(2.8)	4(3.3)	2(4.3)	-	9(3.1)
文化 柳		4(3.7)	2(1.6)	1(2.1)	-	7(2.4)
坡平 尹		4(3.7)	1(0.8)	-	孫婦 1	6(2.1)
기타 姓貫		48(44.0)	56(45.9)	27(57.4)	3	134(46.5)
전체		109(100)	122(100)	47(100)	10	288(100)

비고) ① () 안의 수치는 %임.

② ‘기타’ 관계는 戶首의 祖母, 叔母, 嫂, 孫婦, ‘育[妾] 등을 말함(이하, [표9]와 [표11]에서도 같음).

그러면 戶首의 처는 어떠한 신분의 배우자였을까? 전통시대에는 신분별로 통혼 양상이 커다란 차이가 있었기에, 19세기 중엽 ‘永宗’ 섬 주민들에게서도 그러한 양상을 발견되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물론 섬 지역의 경우 육지에 비해 班村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형성되어 있더라도 육지와는 그 판단 기준 및 정도가 다르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김해 김씨 남성 戶首 중 5명 이상을 보인 특정 성관의 처 호칭을 분석해 보았다([표8] 참조). 먼저 전주 이씨(13명)는 ‘氏’ 호칭과 ‘召史’ 호칭이 약 46%씩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1명은 ‘姓’을 호칭으로 기재하였다. 즉, 상층과 하층 신분이 절반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다음 11명이 나타난 경주 김씨 배우자는 ‘氏’가 45.5%, ‘姓’이 54.5%로 거의 절반씩 분포하여 상층과 중층 신분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8] 1867년 ‘永宗’ 거주 金海 金氏 戶首의 妻 호칭 (단위: 명)

妻 성관 \ 호칭	‘氏’	‘姓’	‘召史’	기타	계
全州 李	6(46.2)	1(7.7)	6(46.2)	-	13(100)
慶州 金	5(45.5)	6(54.5)	-	-	11(100)
靈光 張	6(75.0)	1(12.5)	1(12.5)	-	8(100)
密陽 朴	1(14.3)	2(28.6)	3(42.9)	1(14.3)	7(100)
仁同 張	5(100)	-	-	-	5(100)

비고 ① () 안의 수치는 %임(이하, [표10]과 [표12]에서도 같음).

② ‘기타’는 ‘朴哥’로 기재된 경우임.

이밖에 영광 장씨(8명)와 인동 장씨(5명) 배우자는 거의 상층 신분의 ‘氏’ 호칭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며, 반면 밀양 박씨 배우자의 경우는 ‘姓’이 약 29%, ‘召史’가 약 43% 등의 비중을 보여 중층과 하층 신분의 구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김해 김씨와 집중적인 통혼 관계를 맺은 성관의 배우자는 대체로 중상층 신분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2) 전주 이씨: 성혼 남성 165명의 배우자 성관은 김해 김씨가 17%로 가

장 높게 나타났는데([표9] 참조), 戶首가 18.5%, 父 18.6%, 子 7.4%, 이밖에 孫子が 1명이었다. 따라서 전주 이씨 역시 3대에 걸쳐 김해 김씨와 집중적으로 통혼을 하는 양상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표9] 19세기 중엽 '永宗' 거주 全州 李氏 남성의 通婚 양상 (단위: 명)

성관	관계	戶首의 妻	戶首의 母	戶首의 子婦	기타	계
金海	金	12(18.5)	13(18.6)	2(7.4)	孫婦 1	28(17.0)
慶州	金	4(6.2)	6(8.6)	1(3.7)	-	11(6.7)
靈光	張	8(12.3)	1(1.4)	1(3.7)	-	10(6.1)
慶州	鄭	1(1.5)	5(7.1)	1(3.7)	-	7(4.2)
慶州	崔	2(3.1)	2(2.9)	1(3.7)	弟嫂 1	6(3.6)
晉州	姜	2(3.1)	3(4.3)	-	-	5(3.0)
慶州	李	2(3.1)	3(4.3)	-	-	5(3.0)
密陽	朴	2(3.1)	-	1(3.7)	育(妾) 1	4(2.4)
水原	白	3(4.6)	1(1.4)	-	-	4(2.4)
坡平	尹	1(1.5)	3(4.3)	-	-	4(2.4)
기타	姓貫	28(43.1)	33(47.1)	20(74.1)	-	81(49.1)
전체		65(100)	70(100)	27(100)	3	165(100)

한편, 영광 장씨와의 통혼은 戶首는 12%의 수치를 보여 적지 않았으나 그 父와 子는 각 1명씩으로 나타나 3대에 걸친 통혼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전주 이씨 남성 戶首 중 4명 이상을 보인 특정 성관의 처 호칭을 분석해 보았다([표10] 참조).

[표10] 1867년 '永宗' 거주 全州 李氏 戶首의 妻 호칭 (단위: 명)

妻 성관	호칭	'氏'	'姓'	'召史'	계
金海	金	5(41.7)	3(25.0)	4(33.3)	12(100)
靈光	張	5(62.5)	1(12.5)	2(25.0)	8(100)
慶州	金	3(75.)	1(25.0)	-	4(100)

먼저 12명으로 가장 많았던 김해 김씨는 ‘氏’가 약 42%, ‘姓’이 25%, ‘召史’가 33% 등을 보여 상층 신분이 다소 우세이기는 하였으나 각 신분층 간 특별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 8명이 나타난 영광 장씨 배우자는 ‘氏’가 62.5%, ‘姓’이 12.5%, ‘召史’가 25% 등을 보여 상층 신분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주 김씨(4명)의 경우 ‘氏’가 75%를 보여 거의 상층 신분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주 이씨와 집중적인 통혼 관계를 맺은 성관의 배우자는 대체로 상층 신분의 출신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3) 경주 김씨: 성혼 남성 154명의 배우자 성관을 살펴보았는데([표11] 참조), 김해 김씨가 약 16%로 가장 많았다. 戶首가 15.5%, 父가 17.6%, 子가 약 17%였다. 따라서 경주 김씨 역시 김해 김씨와 3대에 걸쳐 집중적으로 통혼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표11] 1867년 ‘永宗’ 거주 慶州 金氏 남성의 通婚 양상 (단위: 명)

성관 관계	戶首의 妻	戶首의 母	戶首의 子婦	기타	계
金海 金	9(15.5)	12(17.6)	4(16.7)	-	25(16.2)
全州 李	6(10.3)	7(10.3)	6(25.0)	祖母 1, 孫婦 1	21(13.6)
靈光 張	3(5.2)	6(8.8)	-	祖母 1	10(6.5)
仁同 張	4(6.9)	1(1.5)	2(8.3)	弟嫂 1	8(5.2)
文化 柳	-	4(5.9)	1(4.2)	-	5(3.2)
南平 文	3(5.2)	1(1.5)	1(4.2)	-	5(3.2)
慶州 鄭	3(5.2)	1(1.5)	1(4.2)	-	5(3.2)
慶州 崔	2(3.4)	3(4.4)	-	-	5(3.2)
密陽 朴	-	4(5.9)	-	-	4(2.6)
坡平 尹	1(1.7)	2(2.9)	1(4.2)	-	4(2.6)
기타 姓貫	27(46.6)	27(39.7)	8(33.3)	-	62(40.3)
전체	58(100)	68(100)	24(100)	4	154(100)

또한 경주 김씨 남성은 전주 이씨 배우자와의 통혼도 약 14%로 다수를 나타냈는데, 戶首와 父가 약 10%였으며, 子는 무려 25%나 되었다. 이밖에 祖父와 孫子가 각 1명씩이었다. 따라서 경주 김씨의 경우 3대에 걸쳐 전주 이씨와 집중적으로 통혼을 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특히 아들 대에 그 집중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김씨 남성 戶首 중 4명 이상을 보인 특정 성관의 처 호칭을 분석해 보았더니([표12] 참조), 9명으로 가장 많았던 김해 김씨는 ‘氏’가 약 89%로 압도적이었으며, ‘姓’이 1명이었다. 다음 6명이 나타난 전주 이씨 배우자는 ‘氏’가 절반인 3명(50%)이었으며, ‘姓’이 1명(약 17%), ‘召史’가 2명(약 33%) 등을 보여 상층 신분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4명을 보인 인동 장씨는 ‘氏’와 ‘姓’이 각각 절반씩을 보였다. 따라서 경주 김씨와 집중적인 통혼 관계를 맺은 성관의 배우자는 대체로 상층 신분의 출신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표12] 1867년 ‘永宗’ 거주 慶州 金氏 戶首의 妻 호칭 (단위: 명)

妻 성관 \ 호칭	‘氏’	‘姓’	‘召史’	계
金海 金	8(88.9)	1(11.1)	-	9(100)
全州 李	3(50.0)	1(16.7)	2(33.3)	6(100)
仁同 張	2(50.0)	2(50.0)	-	4(100)

결과적으로 19세기 중엽에 ‘永宗’ 섬에 거주한 주민들 가운데 거대 성관은 특정 성관과 累代에 걸쳐 집중적으로 통혼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통혼권이 ‘永宗’ 섬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성관과 집중적으로 통혼 관계를 맺은 거대 성관은 대체로 상층 신분의 출신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육지 사람들과 쉽게 관계를 맺기 어려운 섬 지역의 특성(즉, 고립성? 기피성?)이 반영된 것이며,⁴¹⁾ 이와 아울러 주민들을 水軍鎭의 軍役 자원으로 원활하게 差定하려는 일종의 혼인 정책 및 풍습이 지속된 결

과였다고 하겠다.

한편, 19세기 중엽 ‘永宗’ 섬 주민들도 상층 신분인 경우 특정 성관과 집중적인 통혼 관계를 맺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은 육지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유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 중첩된 통혼 사례

戶首와 처의 성관 분석을 통해 19세기 중엽 ‘永宗’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 내에서 서로 통혼 관계를 맺는 경향을 보였다고 판단하였다. 지역 내혼을 명확히 구명하기 위해서는 호적 자료에 기재된 인명들(호수와 처의 사조 이름)을 연계 추적하는 방법, 그리고 각 가문의 族譜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적 방법은 매우 많은 시간과 작업이 요구되기에 일단 하나의 분석 사례를 제시해 본다.⁴²⁾

아래 [표13]은 후소면과 삼목면에 거주한 김해 김씨 중형제 3명을 중심으로 그 가계를 추적하여 정리한 것이다. 김해 김씨는 19세기 중엽 ‘永宗’ 주민(남녀 모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성관이었음은 앞에서 설명하였는데, 이들 세 형제(№.4~6)의 처 파평 윤씨와 인동 장씨, 경주 정씨 등도 역시 ‘永宗’ 내에서 다수 성관이었다.

김해 김씨 3명과 그들의 처 3명의 四祖 기재 내역을 통해 가계를 추적해 본 결과, 전소면(№.2)과 후소면(№.3), 용유면(№.8) 등에서 김해 김씨 형제의 장인과 종숙 등이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영하면에 거주한 진주 강씨(№.1)는 경주 정씨(№.8)의 형인 №.7의 4촌 처남이었다.

41) 황해도 甕津半島에 속한 昌麟島 주민의 1905년 호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섬 주민의 지역 내혼 양상이 일반적이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임학성, 『20세기 초 황해도 甕津郡 島嶼住民의 생활 양태: 1905년도 甕津郡 南面 昌麟島戶籍 자료의 분석 사례』, 『한국학연구』 56, 2020, 547~548쪽).

42) “1867년 永宗鎭戶籍” 자료를 분석하면서 여기에서 사례로 제시한 김해 김씨뿐 아니라, 다른 주민들에게서도 지역 내에서의 중첩된 통혼망을 형성하고 있는 사례를 적잖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별도의 지면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표13] 김해 김씨 사례를 통해 본 1867년 '永宗' 주민들의 통혼망

Na	면	통	호	戶首			戶首의 四祖				처			처의 四祖				관계
				이름	본관	연령	부	조	증조	외조	이름	본관	연령	부	조	증조	외조	
1	營下	28	1	姜大春 [軍官]	晉州	52	位福	呂信	億釗	朴昌孫 (密陽)	韓召史	淸州	48	夫得	三祖不知			戶首: Na.07 처의 4촌 동생
2	前所	15	3	尹萬錫 [閑良]	坡平	54	最雲	光兼	仕郁	朴成燁 (密陽)	金氏	海州	52	寬郁	大亮	鳳台	張啓漢 (仁同)	戶首: Na.04의 장인
3	後所	18	1	張萬詰 [軍官]	仁同	62	日文	源位	益快	崔□□ (密陽)	-						戶首: Na.05 처의 從叔	
4	後所	17	2	金再吉 [閑良]	金海	26	春碧	明哲	亓善	金龍雲 (豐山)	尹氏	坡平	28	萬錫	景雲	光兼	金寬郁 (海州)	戶首: Na.02의 사위. Na.05, 06의 從弟
5	三木	9	3	金唱善 [閑良]	金海	32	春宗	明哲	亓善	張仲孫 (靈光)	張氏	仁同	33	萬孫	日文	源位	尹光濂 (坡平)	戶首: Na.03의 從姪 사위
6	三木	10	4	金順吉 [前把總]	金海	28	春暹	明哲	亓善	黃斗應點 (昌原)	鄭氏	慶州	31	萬暹	厚大	祿贊	趙善伊 (漢陽)	戶首: Na.08의 사위
7	龍流	22	3	鄭判暹 [忠義衛]	慶州	74	厚大	祿贊	吉先	金光漢 (金海)	姜姓	晉州	62	雲福	呂信	億祚	朴世華 (密陽)	戶首: Na.01의 弟兄. Na.08의 형
8	龍流	23	2	鄭萬暹 [忠義衛]	慶州	60	厚大	祿贊	吉元	金光漢 (金海)	趙姓	漢陽	60	善	日昭	東讚	鄭尙海 (慶州)	戶首: Na.06의 장인

비고) () 안은 본관이며, [] 안은 직역인.

따라서 19세기 중엽 '永宗' 지역에서 거주한 주민들은 중첩된 통혼을 통해 거미줄과 같은 친족 결합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 결합의 지역적 범위는 '永宗'의 전체 지역, 영하면·전소면·후소면·삼목면·용유면을 모두 망라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된 '永宗' 지역이 하나의 통혼망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근대 시기 정부는 항상적이고 효율적인 稅收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이동을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억제하였는데, 더군다나 국가의 긴급 정책인 海防을 목적으로 수군진이 설치된 섬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섬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였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배경과 상황들로 인해 19세기 중엽 '永宗' 섬 주민들은 '지역 內婚'과 '중첩된 통혼'이라는 양상을 강하게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3) ‘育’(=妾)과의 통혼

“1867년 永宗鎭戶籍”에는 다른 호적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표기가 확인된다. 戶 내에서 동거하는 자 가운데 ‘育’이라고 특별히 구분한 경우가 그러한데, 마치 남성의 직역 기재처럼 부녀자의 성명 앞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永宗’ 호적에서 확인된 총 4건의 사례를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영하면 제6통 제5호: “軍官金○成年肆拾參乙酉生本金海 父學生○福 祖學生○澤 曾祖學生○重 外祖忠義趙○斌本稷山 率育張召史年肆拾參乙酉生本仁同 率子童蒙○紀年拾伍壬子生次子童蒙○紀年拾參乙卯生 等戶口相準者”

(나) 영하면 제9통 제3호: “閑良李○慶年伍拾伍癸酉生本全州 父學生○松 祖學生○伯 曾祖通德郎○龜 外祖學生白○永本水原 率育朴召史年肆拾玖己卯生本密陽 率子○成年貳拾戌申生次子○吉年拾貳丙辰生 等甲子戶口相準者”

(다) 전소면 제31통 제3호: “閑良金○均年伍拾柒辛未生本安東 父學生○國 祖學生○遇 曾祖學生○回 外祖學生金○仁本金海 率育韓姓年伍拾肆甲戌生本淸州 等甲子戶口相準者”

(라) 전소면 제35통 제3호: “忠義金○學年捌拾伍癸卯生本金海 父忠義衛○燦 祖忠義○哲 曾祖忠義○澤 外祖

[사진3] “1867년 永宗鎭戶籍”의 ‘育’ 동거 家戶



學生金○依本陽川 率育愼召史年捌拾伍癸卯生本居昌 率子忠義○浩年參拾陸
壬辰生 等甲子戶口相準者”

사례 (갸)는 43세의 軍官 金○成이 동갑의 ‘育’ 張召史[조이], 그리고 童蒙 직역의 두 아들(15세와 13세)과 동거하는 가족이다. 다음, 사례 (나)는 55세의 閑良 李○慶이 49세의 ‘育’ 朴召史, 그리고 두 아들(20세와 12세)과 동거하는 가족이다. 사례 (태)는 57세의 閑良 金○均在 54세의 ‘育’ 韓姓과 단 둘이서 동거하는 가족이다. 끝으로 사례 (래)는 85세의 忠義衛 金○學이 동갑 ‘育’ 愼召史, 그리고 忠義衛 아들(36세)와 동거하는 가족이다.

이들 4건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특징은 戶 내에 妻에 대한 기재가 없는 즉, 戶首가 홀아비[鰥夫]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育’ 부녀자 모두 연령이 홀아비 호수와 비슷하다는 점도 주목된다. ‘育’의 뜻풀이가 ‘기르다’인데, 따라서 일단 戶首가 ‘育’ 표기 부녀자를 기르고 있다는 해석은 어색하다.

그러나 사례 (갸)와 (나), (태)의 경우 戶 내에 戶首의 아들이 동거하고 있다. 아들은 모두 미혼으로 나이는 12세, 13세, 15세, 20세, 36세 등이다. 이에, 어린 아들들을 남겨두고 본처가 사망하였으나, 사정 상 후처를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戶首가 아들들을 키어줄 ‘育’을 집으로 들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즉, “1867년 永宗鎭戶籍”에서 확인된 ‘育’은 妾에 대한 다른 표현이었다고 본다.

조선시대 본처가 있는데도 또 첩을 들이는 경우는 일부 관직을 가진 양반의 경우이나 가능하였다고 한다. 향촌사회에 거주한 양반사족은 본처가 사망한 후 후처를 들여야 하는데 사정이 마땅치 않을 경우, 첩을 들여 본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게 향촌사회 양반가의 일반적 양상이었다고 한다.⁴³⁾ 위에서 살펴본 19세기 중엽 ‘永宗’ 섬 지역에서의 娶妾 사례는 이러한 양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다. 다만, ‘育’ 부녀자의 호칭이 ‘姓’과 ‘召史’인 점으로

43) 정진영, 앞의 논문(2019), 258쪽.

보아 평민 신분층 이상임은 확인되며, 戶首의 신분 상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19세기 중엽 ‘永宗’ 섬 지역에서 살았던 ‘育’은 어떠한 사정으로 법제적으로 본처라는 공적 지위만 지니지 못했을 뿐, 사실 상 본처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5. 맺음말

지금까지 1867년에 작성된 戶籍 자료를 분석하여 인천의 강화도 남단에 위치한 永宗島 주민들의 通婚 양상을 考究하였다. 조선 후기에 영종도라는 섬 지역에서 戶·口를 조사하여 戶籍大帳을 작성한 까닭은 이 섬에 軍政은 물론 주민들에 대한 戶政 및 徵稅까지 통괄하는 水軍 ‘獨鎭’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통혼 양상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조선시대가 철저하게 신분질서에 의해 운영된 사회였고 통혼은 신분체제를 공고히 하거나 유지하는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였기에 연구자의 주된 관심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 연구가 거의 육지에 거주한 개인이나 가문 및 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러다보니 섬 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의 통혼 양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이 연구는 조선시대 통혼 양상에 관한 또 다른 사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연구를 통해 드러난 양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67년 ‘永宗’[영종도(옛 자연도)·삼목도·용유도는 물론 月尾島·薪佛島·舞衣島 등을 모두 포함] 섬 지역에서 거주한 908명 戶首의 姓貫은 金海 金氏(호수 전체의 14.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全州 李氏(7.9%), 慶州 金氏(7.7%), 慶州 鄭氏(5.1%), 仁同 張氏(4.8%), 靈光 張氏(4.4%), 慶州 崔氏(3.3%), 晉州 姜氏(2.9%), 文化 柳氏(2.2%), 密陽 朴氏·坡平 尹氏(이상, 각 2.1%), 驪州 秋氏(1.5%), … 등의 분포를 보였다. 호수

妻 777명의 성관은 호수와 마찬가지로 김해 김씨(처 전체의 13.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주 이씨(8.1%), 경주 김씨(7.6%), 영광 장씨(5.0%), 진주 강씨(4.4%), 경주 정씨(4.2%), 밀양 박씨(3.9%), 인동 장씨(3.7%), 경주 최씨(2.8%), 문화 류씨와 달성 서씨(이상 각 1.8%), 파평 윤씨(1.5%), ... 등의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처의 성관 분포는 戶首의 성관 분포와 거의 일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위에 분포한 김해 김씨·전주 이씨·경주 김씨 3대 성관은 그 점유율에서도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둘째, 1867년 ‘永宗’ 섬에 거주한 戶首와 妻 중 다수를 보인 3대 성관의 통혼 관계를 살펴보았더니, 김해 김씨 戶首는 전주 이씨(9.8%), 경주 김씨(8.3%), 영광 장씨(6.1%), 밀양 박씨(5.3%) 등과 통혼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주 이씨 戶首는 김해 김씨(16.7%), 영광 장씨(11.1%), 경주 김씨(5.6%), 그리고 경주 김씨 戶首는 김해 김씨(13.2%), 전주 이씨(8.8%) 등과 통혼이 집중되었다. 따라서 ‘永宗’ 섬 지역에서 거주한 거대 성관들은 서로 중첩된 통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戶首의 처뿐만 아니라 母와 子婦, 祖母, 嫂, 孫婦 등 모든 부녀자들의 통혼 양상을 분석한 결과, 역시 19세기 중엽에 ‘永宗’ 섬 지역에 거주한 특정 성관끼리 累代에 걸쳐 집중적으로 통혼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처의 호칭(‘氏’, ‘姓’, ‘召史’ 등)을 살펴보았더니, 특정 성관과 집중적으로 통혼 관계를 맺은 거대 성관은 대체로 상층 신분의 출신들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永宗’ 호적 자료에서 후소면과 삼목면에 거주한 김해 김씨 종형제 3명을 중심으로 그 가계를 추적해 보았다. 이들 세 형제의 처는 ‘永宗’ 지역 내 다수 성관이었던 경주 정씨·인동 장씨·파평 윤씨로 나타났다. 이들 6명(김해 김씨와 그 처)의 四祖를 추적한 결과 거미줄처럼 얽힌 통혼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 결합의 지역적 범위는 ‘永宗’의 전체 지역, 영하면·전소면·후소면·삼목면·용유면을 모두 망라하고 있었다. 즉,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된 ‘永宗’ 지역이 하나의 통혼망을 형성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1867년 永宗鎭戶籍” 자료의 분석에서 확인된 ‘지역 內婚’과 ‘특정 성관끼리의 중첩된 통혼’ 양상은 육지 사람들과 쉽게 관계를 맺기 어려운 섬 지역의 특성(즉, 고립성? 기피성?)이 반영된 것이며, 이와 아울러 섬 주민들 간의 통혼을 통하여 水軍鎭의 軍役 자원을 원활하게 충당하려는 정책 및 관례가 지속된 결과였다고 해석해 보았다. 전근대 시기 정부는 항상적이고 효율적인 稅收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이동을 법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억제하였는데, 더군다나 국가의 긴요 정책인 海防을 목적으로 수군진이 설치된 섬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섬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였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배경과 상황들로 인해 19세기 중엽 ‘永宗’ 섬 주민들은 ‘지역 內婚’과 ‘중첩된 통혼’이라는 양상을 강하게 나타냈다고 보았다.

한편, 19세기 중엽 ‘永宗’ 섬 주민들도 상층 신분의 경우, 특정 성관과 집중적인 통혼 관계를 맺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은 육지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유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 “1867년 永宗鎭戶籍”에는 다른 호적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표기가 확인되었는데, 바로 戶 내에서 동거하는 자 가운데 ‘育’이라고 특별히 구분한 경우였다. 이들 戶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특징은 戶 내에 妻에 대한 기재가 없는 즉, 戶首가 홀아비[鰥夫]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들 ‘育’ 부녀자 모두 연령이 홀아비 호수와 비슷하다는 점도 주목되었다. 즉, “1867년 永宗鎭戶籍”에서 확인된 ‘育’은 妾에 대한 다른 표현이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同治六年正月 日永宗防營今丁卯式帳籍冊』(1876년.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복제본.
- 徐兢(1091~1153), 『宣和奉使高麗圖經』 권39 海島 6, 紫燕島.
- 『朝鮮王朝實錄』.
- 『備邊司謄錄』.
- 『世宗實錄地理志』, 京畿 富平都護府 仁川郡.
- 『輿地圖書』(1760년대 편찬), 江都府 永宗防營圖誌.
- 『京畿誌』(1842~43년 편찬) 3책, 『永宗鎮圖誌』.
- 『京畿邑誌』(1871년 편찬) 1책, 『同治十年十月 日京畿永宗防營邑誌及事例』.
- 『畿甸邑誌』(1894~95년 편찬) 1책, 『開國五百四年正月 日永宗鎮事例』.
- 『海東地圖』(18세기 중엽 편찬) 上, 『京畿道地圖』, 『永宗鎮地圖』.
- 『戶口總數』(1789년 경 편찬) 2책, 京畿道, 仁川.
- 『韓國戶口表』(1907년 편찬), 京畿道 仁川郡.
- 『民籍統計表』(1910년 편찬), 京畿道 仁川郡.
- 善生永助,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1934.
-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경인문화사, 1982.
- 『영종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인하대학교 박물관·인천광역시 중구청, 2000.
- 『仁川 (舊)永宗鎮址 地表調査報告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3.
- 김경옥, 『朝鮮後期 島嶼研究』, 혜안, 2004.
- 趙康熙, 『嶺南地方 兩班家門의 婚姻關係』, 경인문화사, 2006
- 임학성 외, 『譯註 仁川島嶼地域의 地誌資料』,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10.
- 김경옥, 『수군진: 물고기 비늘처럼 설치하다』, 민속원, 2019.
- 朴廣成, 『紫燕島攷』, 『畿甸文化研究』 6, 인천교육대학 기전문화연구소, 1975(朴廣成, 『韓國中世社會와 文化』, 민족문화사, 1991에 수록).
- _____, 『雲揚艦砲擊事件에 대하여』, 『畿甸文化研究』 8, 인천교육대학 기전문화연구소, 1977(朴廣成, 위의 책에 수록).
- 李憲昶, 『『民籍統計表』의 檢討』, 『古文書研究』 9·10합, 한국고문서학회, 1996.
- 배우성, 『조선후기 沿海·島嶼지역에 대한 국가의 인식 변화』, 『島嶼文化』 1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7.
- 고석규, 『設郡 논의를 통해 본 조선후기 섬의 변화』, 『島嶼文化』 1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7.
- 임학성, 『朝鮮後期 牧馬軍 一家의 身分變化: 靈興島 平澤林氏家所傳 准戶口의 분석』, 『한국학연구』 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8.
- 강석화, 『조선후기의 경기남부 해로와 대우·靈興島』, 『畿甸文化研究』 28, 인천교육대학 기전문화연구소,

2000.

- 李泰鎭, 『운양호(雲揚號) 사건의 진상-사건 경위와 일본국기 게양설의 진위-』, 정만조·한충희·김인걸 외, 『조선의 정치와 사회』, 집문당, 2002.
- 임학성, 『인천지역의 조선시대 戶籍資料에 관한 기초적 연구(I): 甕津郡 島嶼지역의 准戶口와 仁川港지역의 ‘新式戶籍’ 소개』, 『인천학연구』 2-1,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3.
- _____, 『19세기 西海 設鎭島嶼지역의 戶籍자료를 통해서 본 戶政 및 住民의 특성: 國史編纂委員會 소장 德積島 安東金氏家の 准戶口를 중심으로』, 『仁荷史學』 10, 인하역사학회, 2003.
- _____, 『戶籍관련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 후기의 가족구성 양상: 한국가족사의 실체를 究明하기 위한 하나의 試圖』, 『민족문화연구』 4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 _____, 『19세기 후반 仁川 島嶼지역의 주민 구성: 1867년 ‘永宗鎭戶籍大帳’의 사례 분석』, 『한국학연구』 1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 이성임, 『18세기 경상도 단성현 범돌아면의 혼인 양상』, 『남도문화연구』 19,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남도문화연구소, 2010.
- 임학성, 『조선시기 京畿 島嶼지역의 空間認識 변화: 國營牧場 설치(조선 전기)에서 水軍鎭 설치(조선 후기)로』, 『島嶼文化』 4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4.
- 김경옥, 『19세기 후반 『靑山鎭丙子戶籍』과 섬 주민들의 생활상』,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 임학성, 『18~19세기 西海 島嶼住民의 거주 양태: 白翎島 거주 金海 金氏 일가의 古文書 자료 분석』, 『한국학연구』 4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 _____, 『18~19세기 仁川 德積島 주민들의 거주 양상: 金海 金氏 일가의 古文書 분석 사례』, 『한국학연구』 4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 _____, 『조선 후기 京畿 島嶼지역의 水軍鎭 설치와 주민 생활 양태: 水軍防禦營이 설치된 永宗島의 戶籍 자료 분석 사례』, 『역사민속학』 57, 한국역사민속학회, 2019.
- 정진영, 『대구지역 한 양반가의 일기자료를 통해본 18세기 혼인풍속: 百弗庵 崔興遠의 『曆中日記』(1735~1786)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54, 한국고문서학회, 2019.
- 임학성, 『20세기 초 황해도 甕津郡 島嶼住民의 생활 양태: 1905년도 甕津郡 南面 昌麟島戶籍 자료의 분석 사례』, 『한국학연구』 5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 송기중, 『17~18세기 중엽 강화도 방어체제 정비와 영종진의 위상 변화』, 『朝鮮時代史學報』 95, 조선시대사학회, 2020.

Marriage Patterns of Residents of Yeongjong Island in the Mid-19th Century

– An Analysis of “Census Register of Yeongjong-jin, 1867” –

Lhim, Hak-Seong*

Joseon Government strengthened its maritime defense system based on Ganghwa Island during the mid-seventeenth century. As part of this, in 1653, Yeongjong Military Base, also known as Yeongjong-jin (永宗鎭) was relocated from Yeongjong Harbor (永宗浦), Namyang (南陽), to Jayeon Island (紫燕島), present-day Yeongjong Island (永宗島). Since then, Yeongjong-jin had taken shape as a naval base: it was upgraded to Independent Military Base (獨鎭) in 1758; it even carried out migration plans in order to increase inhabitants.

Independent Military Bases were allowed to manage their population and land as well as military on their own; they were able to collect taxes and use them for them-selves. Therefore, it appears that Yeongjong-jin carried out census and made census register once every three years. Currently, there remains only one register titled “Census Register of Yeongjong-jin, 1867.” This paper reviews it and analyzes marriage patterns of residents of Yeongha-myeon (營下面) (Jayeon and Wolmi Islands), Sammok-myeon (三木面) (Sammok and Shinbul Islands), and Yongryu-myeon (龍流面) (Yongryu and Muui Islan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Of those who resided in the islands under the jurisdiction of Yeongjongjin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Inha Univ.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most men as a family head and their wives came from a few numerically strong families. Marriages happened between one numerically strong family and another, and numerically strong families got related by marriage with certain famili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Numerically strong families which got related by marriage with certain families generally belonged to the upper class. Also, a case study of the brothers shows that residents' network by marriage was spread all over the area under the jurisdiction of Yeongjong-jin, that is, Yeongha-myeon, Jeonso-myeon, Huso-myeon, Sammok-myeon, and Yongyu-myeon.

In conclusion, it seems that intermarriage between insular residents and preference for certain families when choosing someone to marry was relevant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t was not easy for them to have relations with people on land. Also, the author analyzes that these marriage patterns were the outcome of policy and custom, which aimed to help stable supply of human resources for the naval base.

Key words: Incheon, Jayeon island(紫燕島), Yeongjong island(永宗島), Sammok island(三木島), Yongryu island(龍流島), naval base, Yeongjong-jin (永宗鎭), census register, insular residents, marriage

